

## 지방자치·종합

## ■ 지방선거 핫코너

## 광주교육감 '공명선거 캠페인' 반쪽 행사 전락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제안한 '공명선거 공동캠페인' 행사가 다른 후보들의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전락했다.

장희국 예비후보측은 26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15명과 함께 공명·정책선거 선서 및 서약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5명의 후보만 참석했다.

교육감 후보로는 자리를 마련한 장 후보만 참석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불참했다. 10명

의 교육의원 예비후보도 전교조 출신 2명을 포함해 4명만 자리를 함께했다.

불참한 예비후보들은 "공명선거를 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선관위나 종립적 사회단체가 아닌 특정후보가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은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예비후보측은 "공명선거를 위해 5명의 후보로만 참석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부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박준영 "보성에 아토피 치유센터"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보성은 녹차 밭과 청정 심해수 등의 자원이 풍부한 만큼 혜양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아토피 치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보성의 한 다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성 회천면 일암산 일원에 녹차·편백 치유관, 식이요법 체험관 등이 들어서는 아토피 치유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득 "경관조명 관련 없다"



정종득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관조명 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후보 선거사무실은 이날 "목포시장 지인이 관련 업체와 시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사업 수주를 돋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마치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일부 세력이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나주시장 무소속 단일화 무산

김대식 하나라당 전남 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여수와 광양 등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ガ스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여수·광양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의 대

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수와 광양이 공해 없는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관련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귀화 인도인 바수무클씨 출마 안해



6·2지방선거에 시·구 의원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귀화 인도인 바수 무클(45)씨가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평화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바수무클씨를 디문화특별위원회장으로 영입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민당은 그를 디문화특별위원회에 임명,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한다는 전략이었으나,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 민주 순천시장 경선 하루 연기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이 애초 일정보다 하루 연기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6일 이날 오후 2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순천시장 국민참여경선대회가 다음날인 2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일화에 이미 합의했다는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놓고 상대편을 의심하고 있으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선거 출마자들 분향소에 현화

## 李대통령·각당 대표등도 조문 잇따라

## 전국 곳곳 천안함 희생자 추모 물결

'천안함 희생자' 장례 이틀째인 26일 서울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희생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조문 행사가 잇따랐다.

◇이명박 대통령 등 각계인사 조문=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직후 마이크로버스 편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에 도착, 장병들 영정 앞에서 현화·분향하고 묵념으로 예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분향 뒤 침통한 표정으로 희생장병들의 영정 하나하나를 쳐다봤으며, 조문록에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의 '고 46용사 합동분향소'에는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등 120여명이 분향소를 방문해 장병들의 애국정신과 넋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사고원인을 칠자리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꼭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등 100여명도 분향소를 찾아 애도했다. 정 대표는 "온 국민이 다 함께 슬퍼하고 계시다.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와 함께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자유선진당 이희창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

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광주·전남 지자체 애도 통찰=광주시청과 순천시 조은프라자, 육군 31사단, 제1전투비행단 등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이날 하루동안 수 천명의 조문객이 찾아 숨진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 박광태 광주시장과 시청 간부 공무원, 안영률 광주지법원장, 이승범 광주경찰청장 등이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목포시도 시청 현관에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공무원들이 합동분향했으며, 육

군 31사단 소속 장병들도 전날에 이어 위병소 면회실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국가를 지키다 산화한 이들을 추모했다.

이날 광주시청 분향소에서 조문한 김모(52)씨는 "군에 간 아들이 생각나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며 "영장 사진을 보니 하나님같이 모두 내 아들 같은 심정이다"고 애도했다.

이밖에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 애음악당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지역 정치권 조문행렬 이어져=각 정당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

정용희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는 26일 오전 광주시청에 마련된 전합한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화와 함께 순국·실종된 희생 장병의 넋을 위로했다.

민노당 정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강기수 서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당 24명 예비후보들도 이날 오전 광주시청 내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현화·분향했다.

진보신당도 윤난칠 광주시장 후보와 윤영대 광산구 시의원 후보, 조양진 광산구 구의원 후보 등이 함께 이날 오후 분향소를 찾아 장병 46인의 넋을 위로하고 조문을 했다.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오전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시청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와 민노당 박웅우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25일 순천시 연한동 조은프라자 앞에 설치된 '천안함 희생 장병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과 시청 간부들이 26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46명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 “조사결과 中·日·러에 설명, 협조 요청”

## 軍, 내달 3일 지휘관 소집… 천안함 대책 협의

군당국은 내달 3일께 전군 주요지휘관을 긴급히 소집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시기는 순직장병 46명의 영결식이 끝난 후인 내달 3일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침몰사건을 통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군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북한이 작년부터 계밀라전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잠수함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육·해·공군·해병대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해 이를 공식 설명하고 향후 대응과정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6자회담 관련국 가운데 미국 만이 직접 조사단을 보내 우리 정부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별도의 조사단이나 참관인을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로서는 조사가 끝나면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국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

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정적 물증을 수집·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미가 중국에 대해 특별협정단을 보내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중국이 조사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정부가 주후 조사결과를 중국측에 설명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www.kimyoung.co.kr](http://www.kimyoung.co.kr)

# 김영미 대학교육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

## 개강▶5·3월 대학편입 강좌안내

### 편입영어

#### 기초영어반

한글영어 전문을 통한, 원어민형 영어, 한국어 유형 영어 학습방법

#### 선행영어반

한글영어 전문영어를 통한 원어민형 영어 학습방법

### 편입수학

#### 선행수학반

한글영어 전문영어를 통한 원어민형 영어 학습방법

##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 전집학원 학원교수단

대학편입 전문 학원교수단

### 전집학원 학원교수단

대학편입 전문 학원교수단

### 전집학원 시스템

대학편입 전문 학원교수단

##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학편입 / 일반대학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학편입